

한라시론



문 영 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선인장 중에서도 제주에서 재배되는 것은 줄기가 납작한 손바닥모양을 여러 개 붙인 것처럼 생겨 손바닥선인장이라고 불리는데 멕시코가 원산지이고 부채선인장 속이며, 다른 이름으로 백년초라고 한다. 제주도 기념물 제35호(1976년 9월 9일)로 지정되었고,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이 개발되면서 바닷가 절벽 위에 군락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어 북제주군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하여 천연기념물 429호(2001년 9월 11일)

백년초 이름값을 할 때

로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59-2번지 등이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선인장이 국기에 그려져 있는 나라 멕시코에서는 옛날부터 줄기는 채소와 가축 사료로 이용하여 왔으며 재래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추를 파는 것처럼 줄기를 팔아 놓거나 깎뚝썰기한 것을 팔고 있으며, 줄기 또는 줄기를 먹는 종류를 ‘노팔’이라 하며, 열매가 큰 종류는 과수로 재배하며 열매 또는 열매를 먹는 종류를 ‘뚜나’라고 한다.

백년초는 오래전부터 약용으로 이용되어, 열매는 씨앗을 포함한 전체를 달여 먹었고, 줄기는 타박상이나 화상에 붙였으며, 근대 열매를 열풍 건조하여 분쇄하는 경우도 씨앗을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다. 민간요법으로는 위를 튼튼하게 하며, 이질, 해열, 소염, 중기, 기침 그리고 기의 흐름과 혈액순환이 잘되게 한다는

등이다. 북제주군에서 백년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열매 및 줄기의 당뇨, 위염, 동맥경화, 호흡기 천식에 대한 효능을 구명하였으며, 열매를 즙으로 가공할 때 껍질과 씨앗이 부산물로 남는데, 이것을 말려서 분쇄하여 돼지사료로 개발하기도 하였는데, 돼지가 잘 자라고 호흡기 질병이 감소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도 열매와 줄기에 포함된 물질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경보호 작용의 영향과 장기기의 향상 등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런 기술을 이전받은 제약업체에서는 ‘인지능력 개선 효과’를 구명하여 상품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성 식품은 수요의 탄력성이 커서 나라전체의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백년초 상품의 수요가 한계에 도달한 느낌이다. 백년초 소비

가 확대되어야 생산농가도 소득이 안정될 것이며, 재배 면적을 유지할 것이고, 가공업체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전 원료 공급은 안정적인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생산자, 가공업체가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백년초 산업이 안정될 것이다.

장수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다. 2025년 치매인구가 100만명이 예상된다고 하니 가장 두려운 병 치매가 우리의 삶의 질을 추락시킬 것이다. 그동안 왜 백년초라고 불렀는지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100년초의 이름값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능성은 다 접어두고 ‘인지능력 개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제대로 100년 초를 부각시키면 인지능력 개선이 필요한 수험생, 중, 장년층 모두가 소비자가 될 수 있으며, 경제가 불황이라도 소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

사설

헬스케어타운 위기, 정상화 방안 찾아야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투자개발병원)인 제주북지국제병원이 갈수록 꼬이고 있어 우려됩니다. 북지국제병원 사업자가 사실상 병원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단지를 내세운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지그룹 지회사인 북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지난달 26일 구사광 대표이사 명의로 ‘병원 근로자들에 게 드리는 글’을 통해 병원사업 중단 의사와 함께 근로자 고용 해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17일 북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결국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지제주는 “제주도에서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 허가로는 도저히 병원을 개원할 수 없었다”라며 병원사업 철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북지제주가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병원사업 중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단지 북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내 의료산업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추진된 헬

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흥·토평동 일대 153만9339㎡ 부지에 아시아 최고의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헬스케어타운 1단계 공사로 콘도미니엄(400세대)과 힐링타운(228실), 북지국제병원(47병상)이 준공됐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타운의 핵심시설인 북지국제병원이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난관에 봉착한 겁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자본 해외유출 규제에 2017년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힐링스파아파트·힐링타운 등 2단계 사업은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인 의료관광단지 조성이 좌초될 경우 토주주들의 토지반환 소송이 예상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앞으로 북지국제병원이 끝내 문을 열지 못할 경우 헬스케어타운은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가 발등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적극 나서서 해법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청정 제주, 청정 낚시터



김 현 석
행정사회부 기자
ik012@ihalla.com

최근 취미로 낚시를 시작한 친구로부터 생선을 잡았다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인근 해안가로 빨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생선을 잡았지만 정작 회로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친구가 낚시를 하고 있던 세화리 인근 해안가로 가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목격됐다. 이곳에는 낚시객들이 많이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해안가 곳곳에 낚시객들이 생선을 장만하면서 발생한 생선 비늘과 생선의 내장, 심지어 생선 찌자국 등도 널브러져 있었다.

친구가 잡은 생선을 장만하면서 생각하다 보니 문득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때 호주지역에서 낚시가 허용되는 ‘제티(jetty)’가 생각났다.

낚시허용구역인 제티는 바다 수심이 얕은 곳에 배를 댈 수가 없어 바다 방향으로 길게 뻗은 부두를 말한다. 지금도 부두역할을 하는 제티도 있지만 낚시터 또는 관광지로 바뀐 곳들도 많다.

낚시터로 변모한 장소에는 낚시객들이 잡은 생선들을 손질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과 함께 철로 된 테이블이 설치돼 있었다. 낚시객들은 이곳에서 잡은 생선을 손질한 뒤 먹고 싶은 부위는 바다로 떨어뜨려 물고기 밥으로 주었다. 생선을 손질한 후 발생하는 생선 비닐, 내장, 찌자국 등이 모두 깔끔하게 처리되는 덕에 제티에는 비린내도 나지 않았고 주변 또한 깨끗했다.

이제 1~2달 후면 바야흐로 제주도 민이 사랑하는 한치절이다. 이 시기에는 낚시객은 물론이고, 한치회를 먹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부둣가나 방파제를 찾게 된다.

한치절은 물론 사계절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가를 만들기 위해 호주의 제티를 벤치마킹해 쾌적한 환경과 지역소득이 연결되는 이른바 ‘제주형 제티시설’들이 제주에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뉴스-in

210건 안전신문고 신고·현장조치

도민안전지킴이 점검반 운영

○…제주도가 공무원 중심의 ‘찾아가는 사방팔방’ 훈디 도민안전지킴이 점검반’을 운영.

제주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 행사·축제, 다중이용시설, 도로시설물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 분야를 대상으로 도민안전지킴이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운영해 총 210건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거나 현장조치했다”고 설명.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생활 주변에 작은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즉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 표성준기자

보건당국 예방수칙 준수 당부

○…최근 전국적으로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제주시 지역에서도 4월말 기준 지난해보다 7명 많은 10명이 발생, 보건당국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

보건당국은 제주시 확진자 10명 중 9명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

은 30~40대로 과거 A형 간염을 앓은 적이 없고 접종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하도록 적극 권장.

제주보건소측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선 올바른 손씻기,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이윤형기자

“노조 형사고발 취하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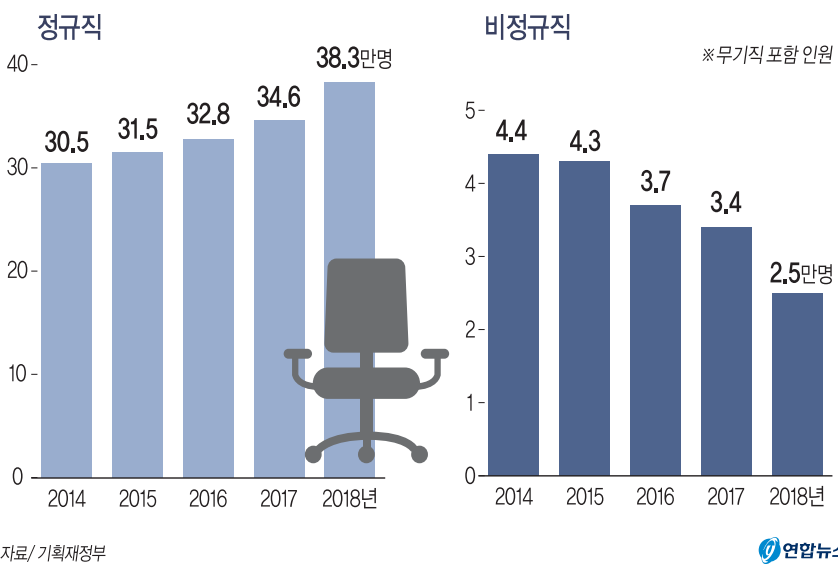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일동은 1일 성명을 내고 최근 한국감정원 노조의 J교수에 대한 형사고발과 관련해 “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

이들은 “노조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회피하고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비판해 온 해당 교수를 고발하고 학자적 양심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자유를 무시했다”고 비판.

이들은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구태적인 단체행동을 멈추고 형사고발을 취하하라”며 “특히 국민 앞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촉구. 백국탁기자

그래픽 뉴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규모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남편 **남평문공 영철**(前 한국국토정보공사·향년 68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신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5월 2일

부인 고태순
아들 문지현
며느리 한지희
딸 문지영

임대

한라일보사 1층

면적 : 53평, 20평

용도 : 의원, 사무실 등

문의
064-750-2530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그랜드보청기



젯습 보청기 특 할인행사!!! 출시 23주년 별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 → 15,000원
다양한 행사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최대 40-50% 할인



그랜드보청기 대표 & 스타키보청기 심상돈 대표

NAVER [그랜드보청기] 검색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시외버스터미널 동쪽 7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블러드 오렌지(다로코)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당도 16브릭스 이상)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유라실생 1년생 * 황금향 3년생

* 유라조생 (감귤박람회 최우수 감귤) 7년생

* 궁천 (궁천번이치) 1,2,5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레드향(무독) 천혜향(무독) 1,2,3년생

* 고림 남진해 수루미 레몬 2년생

* 한라봉 6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자갈(돌맹이) 필요하신분 연락요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목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